

# 서로 같은 듯 다른 화풍...시대를 풍미한 형제

## CULTURE

2025년 3월 4일 화요일

### 의재미술관 기획전 허백련·행면 형제전 관심

#### 8월 31일까지 40여점 출품...직현 허달재전도

의재 허백련과 그의 동생 목재 허행면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꽃피고 물흐르니'라는 주제로 의재 허백련과 그의 아우인 목재 허행면 형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인 형제전을 지난 1일 개막. 오는 8월 31일까지 미술관 1, 2전시실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형제전에는 의재미술관 소장품 중 의재 허백련(1891~1977)과 그의 동생 목재 허행면

(1906~1966)의 산수화와 화조화, 서예작품 등 40여점이 출품돼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시에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허백련의 '무릉도원'과 '석문도명', 목재 허행면의 '사계군방도'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무릉도원'과 '석문도명'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북송아꽃이 핀 도원의 꿈을 보여주며, 또 다른 작품 '위진팔황'은 바닷가 바위에 앉은 독수리의 기세를 볼 수 있다.

진도에서 태어나 자란 의재와 목재는 19세기 문인화가 소치 허련(1808~1893)과 한 집안으로, 어려서 서예와 목화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예술적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의재는 동양의 고전과 문인정신을 바탕으로 남종문인화풍을 견지해 화단의 거장으로 일가를 이뤘고, 목재는 형인 의재에게 서화를 배웠으며, 목재라는 호를 의재로부터 받을 만큼 형의 영향을 받았다.

아울러 의재가 일본에서 범률 공부를 하던 20대에 돌연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면, 목재는 광주고보 재학 중 석고대생이나 수채화, 유화 등 서양화 기법과 이론도 접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목재는 한동안 공무원, 금광사업, 제지사업 등을

하다가 1938년 의재가 연진회(鍊眞會)를 설립할 때 장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업을 시작했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경산수도 여러 점을 남겼으며,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과 화화미를 강조하면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

그의 그림 세계에는 허백련과 마찬가지로 추사 김정희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문인화의 정신이 깊이 스며있다는 평이다.

목재는 의재를 통해 서화를 익혀 화풍의 유사성도 많지만, 의재의 작품이 문인화 정신을 이어 평생 담담하면서도 기품있는 화풍을 보여줬다. 또 목재는 현실적인 풍경화와 화려한 군방도(群芳圖)로 고법(古法)을 혁신하는데 힘을 쏟았다. 각색의 모란이 마당 가득 피어있는 의재의 모란병풍 '대부귀

육곡일지병풍'과 갖가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목재의 '사계군방도'는 두 사람의 화풍상 두드러진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같은 듯 다른 화풍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의재와 목재의 작품을 통해 근·현대 남종문인화의 다양한 면모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의재미술관 4전시실에서는 의재 허백련의 손자이자 의재문화재단 이사장인 직현 허달재의 문인화전도 열린다. 직현 문인화전에서는 담담하면서도 기품있는 수묵 사군자화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밝고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는 매화그림으로 유명한 직현의 최근작 수묵 사군자화와 도기를 그린 그림은 전통을 현대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의재 허백련 작 '무릉도원'



목재 허행면 작 '강산무진팔곡병풍'

## '신춘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 전파

추운 겨울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제199회 정기연주회인 신춘음악회 '희망과 사랑'을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봄을 맞아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다채로운 합창곡과 특별 연주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는 그레미상 수상 작곡가 에릭 휘태커의 대표작을 포함해 깊은 감성과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회는 총 4부로 나뉘 펼쳐진다. 1부 '봄의 노래'는 '강 건너 봄이 오듯', '봄길', '꽃구름 속에서 나뭇가는 처녀' 등 한국 가곡들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에릭 휘태커의 'Five Hebrew Love Songs'를 바이올린 임주연의 연주로 함께 들려준다.

3부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봄의 따뜻함을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작곡가 에릭 휘태커 대표작  
장정권 카운터테너 등 협연

전한다.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해 가곡 '도리지꽃'과 이형진 작곡가의 'Saecula saeculorum', 이호준 작곡가의 'Jubilate Deo'를 노래한다. 마지막 4부를 장식하는 'Arion and the Dolphin'은 고대 그리스의 음악가 아리온의 전설 중 거문고자리의 기원에 관한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돌고래가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카운터테너 장정권과 광주

CBS소년소녀합창단이 각각 아리온과 돌고래 역을 맡아 고음역의 독보적인 음색을 뽐낸다.

이날 함께 무대에 오르는 장정권 카운터테너는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성악과 석사 졸업 후 스페인 바나스 국제콩쿠르에서 3개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주연 바이올리니스트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으로 이탈리아 아미그달라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카메라티남 약장으로 활약 중이다.

음악회 전곡을 함께할 뉴서울타이강양상들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국내 주요 대학에서 타악기&팀파니를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로 이뤄진 단체다.

임창은 상임지휘자는 "음악회를 통해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담아 가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주회의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입장료는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45. 김다경 기자 alsqsl94@



## 캐릭터와 그림언어 통한 '내면 치유'

### 이지수 개인전 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캐릭터와 그림언어를 통한 내면 치유를 꾀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막해 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리는 이지수 작가의 제5회 개인전이 그것으로, 출품작들은 대개 '자아를 깨우다'라는 타이틀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특유의 내성적 성격과 다양한 삶에 대해 그만의 예술적 해석과 감각이 더해져 얼핏 보면 동심을 자극하는 듯하다. 분명한 것은 그가 캐릭터에 쏟는 관심이 일반의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전시장에서 그의 작품을 접하게 되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라 점을 금방 깨치게 한다. 오히려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차별화를 위한 예술적 깊이를 더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도 이질감없이 바라봐진다.

그가 캐릭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마도 육체와 정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기에 그런 듯 싶다. 그의 다채로운 캐릭터들은 자아실현과 작품 영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예술표현과 상징의 장인 가상공간을 구체화시켜주며 회화와 그림언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컫는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 회화기법이 혼재돼 있



Hero.17

는 듯 보인다.

작가는 "그림은 단순히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풀어 놓을 수 있는 도구이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며 또 다른 자아가 살아 숨쉬는,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는 세계"라면서 "이 공간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색과 형태로 한껏 표현한다"고 밝혔다.

이지수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했으며, 개인전 4회와 한국화동성전 및 광주청년미술제 등 다수 단체전에 출품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소상공인지원재단

###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